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징

⑦ 닉스훈트 / Dachshund



글 | 박수영 전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닉스훈트는 독일어로 오소리(Dachs)와 사냥(Hund)의 합성어로 사냥을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이며, 그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다.

고대 이집트 사원의 벽화에 몸통이 길고 다리가 짧은 개가 그려져 있으며, 멕시코(Mexico)나 그리스, 폐루, 중국(China)에서도 닉스훈트와 유사한 돌 모형이나 찰흙으로 만든 세공품이 발견됨에 따라 이와 관련 기원을 추정하는 설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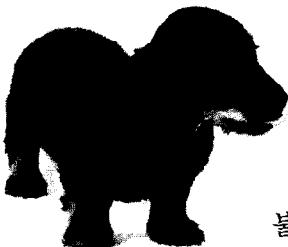
셋하운드와 같이 스위스의 쥬라 산 악지방의 쥬라하운드와 오스트레 일리아의 산악지대에 있던 중형 편서와의 교잡에 의해서 오늘날의 기초견이 만들어졌다는 추측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1200년

경 장시간의 사냥을 위해 프랑스에서 바셋하운드(Basset Hound)를 개량할 때 독일에서는 하운드 종 중에서 다리가 짧은 돌연변이 종을 택해 개량해 낸 것이 닉스훈트라는 추측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고정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다만 토끼, 여우 등의

장시간의 사냥과 굴을 파고 사는 오소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늘고 긴 몸체로 개량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17세기에 처음으로 닉스훈트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고 1884년에 설립된 미국애견협회(American Kennel Club)에서는 1885년에 공식품종으로 공인하였다.



1. 성격

닉스훈트를 처음 보면 슬퍼보일 정도로 검고 촉촉한 눈망울에도 불구하고 늘어진 귀와 비슷한 짧은 다리, 익살스러운 걸음걸이로 웃음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으로 닉스훈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즐거움을 주는 외모와는 달리 영리하고, 대담하며 사냥능력에서 보이는 강인함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외모와는 대조적이다.

짖는 소리가 크고 다른 어떤 사냥개보다도 후각

이 예민하며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냥터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장난끼 많고 활달한 성격덕분에 반려견으로 인정받고 있고 닉스훈트와 함께 산책을 나가게 되면 이품종의 명랑한 성격에 매료될 것이다.

2. 외형

닉스훈트의 품종은 단모종(smooth-haired), 장모종(long-haired), 강모종(wire-haired)으로 구분되며, 스텠더드와 미니어쳐로 나뉘어져 총 6종류로 분류되며 짧은 다리에 긴 몸통의 생김새 때문에 바이너도그, 소세지도그, 핫도그라는 별명이 있다.

땅바닥에서 낮으며, 전체적으로 근육이 발달되어 튼튼하며, 기죽은 탄력이 있고 나긋나긋하며, 과도한 주름이 없다.

절름거리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고, 활동반경이 협소하지 않은 닉스훈트는 잘 균형잡혀 있으며, 과감하고 자신에 찬 머리를 들고 다니며, 총명하고 기민한 얼굴표정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머리 부분은 위나 옆에서 보았을 때 코끝까지 일정하게 점차 좁아지고 눈은 중간 크기에 아몬드 모양이고, 눈 테두리는 진하며, 원기왕성하고쾌활한 표정을 띠며, 퀘蹂듯 강렬하지는 않고, 색깔은 진하다.

목 부분은 길고 근육질이며, 분명하게 다듬어졌고, 늘어진 목살이 없으며, 목덜미에서 약간 아치를 그리면서 어깨에 우아한 모습으로 이어진다.

몸통 부분은 길고 아주 근육이 발달되었다.

옆에서 본 등은 기갑에서 허리사이가 가능한한 최대한의 직선이며, 허리는 짧고 아주 살짝 아치를 그



리고 배는 약간 당겨져 올라가 있다.

걸음걸이는 유려하고 매끄럽다. 앞다리는 너무 훌쩍 뛰어오르는 것도 없이 앞으로 잘 뻗어 나가며, 뒷다리의 추동력과 조화를 이룬다.

앞에서 보면, 다리들은 정확한 평면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나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짧은 다리 및 넓은 가슴을 보정해준다. 뒷다리를 직선으로 추동하며, 뒷무릎은 안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3. 사양 및 건강관리

성급할 정도로 용감한 이 사냥개는 간혹 아이를 물거나 배변 훈련시 다소 고집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단호한 행동교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가족구성원과 아이 그리고 처음 보는 방문객과의 친화성이 타 견종보다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긴 귀로 덮여 있는 귀속의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관리를 요하며 긴 허리로 인하여 등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처럼 등 부분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행위들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비만시에도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식사량조절과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❸